

명리원전 『命理正宗』에 함축된 病藥사상 고찰

김 만 태*

Ⅰ 국문초록 Ⅰ

明代 말, 張楠은 기존 子平命理 이론의 오류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하면서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장남은 자신의 저술 『命理正宗』에서 病藥法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淵海子平』과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미 병약법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를 ‘病藥說’이라고 이름붙이고 그 개념을 체계화한 것은 『명리정종』이 처음이다.

병약설은 “病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고, 傷함이 없으면 뛰어나지 않은 것이다. 格 중에서 병을 제거하면 재물과 복록이 기쁘게 서로 따른다(有病方爲貴, 無傷不是奇, 格中如去病, 財祿喜相隨).”라는 「五言獨步」의 구절에 그 근거를 두었다. 또한 팔자 원국에서 출현할 수 있는 4가지 병(彫枯旺弱)과 이를 치료하는 4가지 약(損益生長)도 열거하며 설명하였다.

장남의 병약설이 기존 자평명리의 中和論과 상반되는 원인은 사주명리의 中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장남의 병약설도 중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중화의 초점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인 日干, 혹은 體를 중심으로 한 사주 전체의 중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이 사용하는 用神에 맞춰져 있어 용신이 병들면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데 있어 主客이 전도되었다. 이는 고전 자평명리학과 현대 자평명리학의 이론적 틀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명리정종, 장남, 병약설, 사주명리, 四病四藥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V. 『명리정종』의 병약설에 함축된 인식 |
| II. 『명리정종』의 저술 경위 | V. 맺음말 |
| III. 『명리정종』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 |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 ware4u@hanmail.net

I. 머리말

사람의 生年月日時라는 時相을 干支로 치환한 후,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화복을 추론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예언체계인 四柱命理는 늦어도 고려시대부터는 문화전파 작용으로 유입되어 당시 지식인들에 의해 활용되어져 왔다. 즉 오늘날 사주명리의 근간을 이루는 新法사주는 고려 말부터 새로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당시 신흥 관료, 지식인들에 의해 성리학파와 함께 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조선시대에 사주명리는 命課學의 試取과목으로 채택되어 官學으로 활용되며 국가와 왕실의 대소사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리고 조선 초부터 본의가 아니게 직·간접적으로 각종 역모 및 불충한 사건들에 연루되는, 반체제적·반왕조적 학문으로도 채색되어지며 각종 참위설과 연계되어 禁忌視되는 학문으로도 여겨졌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주명리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기층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²⁾

東晉(317~420)의 郭璞(276~324)이 저술하고 10세기 중반(오대 말~북송 초) 徐子平이 주석한 『玉照神應真經』에 ‘四柱’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³⁾하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현재로서 사주명리의 기원은 늦어도 4세기 초반 무렵으로 소급된다.⁴⁾

동진의 곽박(4C초), 唐代의 袁天綱(7C초)과 李虛中(9C초) 등에 의해 年柱 위주의 古法사주가 형성되었고, 五代 말에서 南宋에 걸쳐 徐子平(10C중)과 徐大升(13C중) 등에 의해 日干 위주의 신법사주 체계가 완성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서자평은 고법사주에서의 納音五行·神煞·年本 위주의 看命方式을 사용하지 않고 日干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生剋制化와 格局用神을 통해서 命을 추론하는 신법사주 즉 子平사주의 시대를 열었다.

본고에서 논의할 『命理正宗』은 16세기 후반 明代(1368~1644) 말의 命理術士인 張楠(1514~?)이 지은 子平命理書로 명리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命理’라는 용어도 바로 『명리정중』의 書名에서 비롯되었다.

『명리정중』은 기존 자평명리의 학설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動靜說·蓋頭說·病弱說 등 기존 명리서에 서는 보이지 않는 독창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명리이론의 오류도 과감히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1) 김만태, 「조선 전기 이전 四柱命理의 유입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183~185쪽; 김만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주명리의 반체제적 성향」,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1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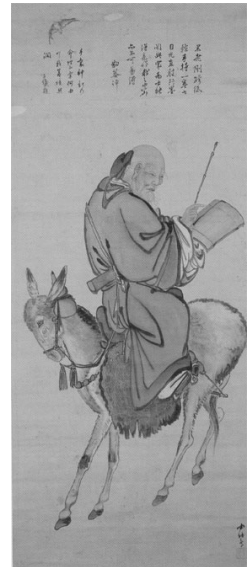
2) 김만태, 위의 논문, 2016, 197~198쪽.

3) 『玉照神應真經』, “승을 만난 四柱는 後妻가 다시 자녀를 낳는다(合逢四柱, 後來妻再立兒郎).……사주의 五行은 內外에서 정해진다(四柱五行, 定於內外).”

4) 최진묵은 雲夢秦簡 『日書』에서 사람이 태어난 日의 干支로써 개인 命運의 길흉을 판단하는 기사들을 근거로 秦漢代에 이미 八字算命術의 맹아 형태가 있었다고 본다. 최진묵, 「漢代 數術學 研究-漢代人의 天·地·人 理解와 그 活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93~95쪽.

『명리정종』은 18세기 말 金弘道の 道釋畫 《果老倒騎圖》에도 등장한다. 《과로도기도》에서 張果⁵⁾가 손에 들고 읽는 책이 『명리정종』으로 묘사되어⁶⁾ 있는 점으로 비춰 볼 때 18세기 조선에서도 이미 『명리정종』이 입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리정종』에 함축된 주요 명리사상을 고찰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명리정종』이 명리학에서 갖는 위상에 비해 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오히려 드문 편인데, 최근 宋志成이 格局論·十二運星論·病藥說을 중심으로 『명리정종』을 연구한 바가 있다.⁷⁾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관점을 달리하여 『명리정종』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병약설·四病四藥說에 함축된 인식과 특징 등을 집중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명리학의 근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림 1〉《과로도기도》

II. 『명리정종』의 저술 경위

『명리정종』의 저자인 장남은 『명리정종』 卷頭에서 ‘臨川西溪逸叟神峰張楠著集’이라고 밝히고 있으며,⁸⁾ 『명리정종』 〈傷官食神格〉에서 본인의 命造를 ‘甲戌年 庚午월 乙亥일 丁丑시’로 소개하고 있다.⁹⁾ 따라서 장남은 중국 명나라 武宗 9년인 1514(甲戌)년에 지금의 江西省 臨川縣에서 태어났으며, 자는 神峰, 호는 西溪逸叟임을 알 수 있다.

『명리정종』이 저술된 연도는 萬曆 17년(1589) 이후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명리정종』 〈五行元理消息賦〉의 ‘福享五行歸祿(복을 향유하려면 오행이 녹에 귀의하여야 된다)’에서 “癸丑년 癸亥월 丁卯일 丁未시, 이 명조는 복견성 건녕부 건안현 林壽官의 팔자이다. 올해 만력 17년으로부터 계산하면 나이가 97세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눈과 귀가 또렷하며 齒髮도 여전하다.”¹⁰⁾라는 주석이 있다. 그러므로 『명리정종』은 만력 17년(1589) 이후로 멀지 않은 시기에 저술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¹¹⁾

5) 張果 : 다른 이름은 張果老이고, 당나라 현종(재위 712~756) 때 사람으로 道教 八仙 중의 한 명이라고 전해진다.

6) 畫題로 다음과 같은 시문이 쓰여 있다.

“果老가 종이[紙] 나귀를 거꾸로 타고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었는데 눈빛이 행간에 바로 쏟아진다. 이는 사능(김홍도)에게 가장 得意作이라 할 수 있으니 중국에서 그것을 구한다 해도 쉽게 얻을 수는 없으리라. 표암(강세황)이 평하다(果老倒騎紙驢, 手持一卷書, 目光直射行墨間. 此最爲士能得意作, 求之中華, 亦不可易得. 豹菴評). 손안의 神訣은 곧 命理正宗인데 어떻게 내 말년의 결환(삶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함, 運數)을 물을 수 있을까? 석초(정안복)가 글 쓰다(手裏神訣, 乃命理正宗, 何由叩我暮境契闊. 石樵題).”

7) 송지성, 『『명리정종』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8) 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神峰通考命理正宗』, 香港: 上海印書館, 1981, 1쪽.

9) 위의 책, 81쪽, 〈傷官食神格〉, “甲戌 庚午 乙亥 丁丑, 逸叟自命, 眞傷官格, 庚金官星爲病.”

10) 위의 책, 342~343쪽, 〈五行元理消息賦〉, “癸丑 癸亥 丁卯 丁未, 此乃福建建寧府建安縣林壽官八字. ……即今年萬曆十七年算起, 壽數九十七, 耳目尚精神, 齒髮更伶俐.”

18세기 초 清代에 간행된 『古今圖書集成』의 「星命部」 「名流列傳」에는 北齊 이후의 유명한 術士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明代의 유명한 술사로서 유일신 · 광경하 · 계동 · 정희성 · 진절산 · 침영달 · 만기 · 김귀곡 · 張神峰 · 고평천 · 호일장 · 유흥한 등 12명 중에 장신봉이 언급되는¹²⁾ 점으로 미뤄볼 때 장남은 명대에 전문적인 術士로서 큰 명성을 날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명부」 「명류열전」은 장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江西通志』를 살펴보면 神峰은 臨川 사람이며, 五星과 五行祿命의 여러 책에 정통하였다. 諸家들이 그릇된 설들을 그대로 좇아 『關謬』一書を 지었는데, 나라 안의 星平家들이 모두 그를 으뜸(宗)으로 여겼다.¹³⁾

장남의 일생 동안 事跡도 다른 命理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모호하여 考辨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地方志들 중에서 方術에 관한 자료는 기재된 것이 드물다. 그러므로 중화민국의 명리학자 袁樹珊이 상세히 고증하고자 했으나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다만 장남은 星學에 정통했으며 五行祿命의 여러 서적들이 舊習과 잘못된 점을 좇는 것을 개탄하여 바른 이치를 尊崇하고 잘못된 학설을 물리치기[闢] 위해 『명리정중』을 저술하였다고 한다.¹⁴⁾ 『명리정중』 〈原叙〉에 이런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장남은 『명리정중』 〈원서〉에서 『명리정중』을 저술하게 된 경위를 직접 자세히 밝히고 있다. 먼저 “내가 여러 책들을 섭렵하면서 그 취지를 많이 깨달았는데 오직 命理만을 보자면 五星指南 · 琴堂書 · 子平淵海書가 있는데 그 이치가 올바른 데서 나왔고 법의 모범을 세웠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근거가 부족한 말이 상당히 있으며……후세에는 이로 인해 세워진 학설이 더욱 많아져서 사람들을 매우 미혹시키니……마치 行者가 길을 잃고서 맹인에게 길을 묻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窮極을 究明해서 부질없는 것들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¹⁵⁾라고 말하였다.

여러 그릇된 학설諸謬說으로 인해 타인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로 스스로도 속을 따름이니 내(장남)가 깊이 개탄 하였거니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세심히 연구한지 40여 년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황연(恍然)히 얻은 바가 있어서 비로소 그 이치에 바른 길이 있는 것을 깨달게 되니 단연코 옆에서 잘못 나온 것은 없다. 五星正說, 五星謬說, 子平諸格正說, 子平諸格謬說, 動靜說, 蓋頭說, 六親說, 病藥說, 雕枯 · 弱旺 · 損益 · 生長의 八法說, 人命見驗說 등을 모두 세워서 존송되는 바른 이치는 모두 취하고[尊崇正理], 잘못된 설은

11) 鄒文耀, 『命學尋真』, 臺北: 集文書局, 1982, 275쪽, 〈張楠神峰通考關謬命理正宗〉.

12) 『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藝術典」 「星命部」 「名流列傳」.

13) 『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藝術典」 「星命部」 「名流列傳」, “按江西通志神峰臨川人, 精星學以五行祿命諸書. 諸家沿習訛舛著關謬一書, 海內星平家皆宗之.”

14) 袁樹珊(원지), 『中國歷代卜人傳』,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98, 468쪽(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2, 50쪽 각주 80 재인용).

15) 張楠(원지), 韋千里 · 尤達人(교정), 앞의 책, 2쪽, 〈原叙〉, “余涉獵群書, 頗領旨趣, 獨觀命理, 有五星指南, 琴堂書, 子平淵海書, 理出於正, 立法之善, 但其中間頗有不根之言, ……後世緣此, 立說益多, 益滋人惑, ……殆若行者迷道, 問盲人指示焉, 是以究之窮陬僻壤.”

모두 물리쳐서 제거한다(關諸謬說)는 뜻으로 『命理正宗』이라 이름을 붙여서 목판으로 새길 것을 부탁하였다¹⁶⁾ 『명리정중』 〈원서〉 말미에서 장남은 밝히고 있다.

『명리정중』에 수록된 장남의 自命을 비롯하여 〈원서〉의 내용을 면밀히 종합해보면, 장남은 과거시험에 수차례 낙방한 후 靑雲의 뜻을 접고서 30대 초반부터 재야에서 40여 년을 命學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오랫동안 실제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명리학설에 관한 ‘尊崇正理, 關諸謬說’의 의도 아래 저술에 매진하여 그의 나이 76세 무렵인 만력 17년(1589) 이후에 『명리정중』을 완성·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甲戌년 庚午월 乙亥일 丁丑시는 逸叟[장남의 自命이다. 眞傷官格이고 庚金 官星이 病이다. ……그런 까닭에 靑雲에 뜻을 가졌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으니 단지 이것은 일점의 庚金이 본신을 羈絆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壬癸水運으로 행하여 투출된 丁火를 손상시키니 관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더욱 근심스럽다. 그러므로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았다.¹⁷⁾

장남은 자신의 이론적 견해를 피력한 후에는 오랜 현장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命造 분석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장남 자신이 직접 『명리정중』을 撰集하였으나, 友人인 杜春芳이 교정하였고, 郭子章¹⁸⁾이 발행하였고, 그의 여섯 아들이 彙編하였으며, 여섯 손자가 謄寫하였다고 『명리정중』 권두에 기재되어¹⁹⁾ 있는 점으로 미루볼 때 『명리정중』이 발간되기까지는 장남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았다고 판단된다.

III. 『명리정중』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

1. 『명리정중』의 구성 체계

『명리정중』은 현재 여러 판본이 시중에 通行하고 있는데,²⁰⁾ 增校하는 사람들의 식견에 따라 첨가되기도

16) 위의 책, 2쪽, 〈原叙〉, “非惟誣人, 實自誣也, 予深慨焉! 由是究心此道, 四十餘年. 一旦恍然有得, 始覺其理有正途, 斷無旁出. 爰立五星正說, 五星謬說, 子平諸格正說, 子平諸格謬說, 動靜說, 蓋頭說, 六親說, 病藥說, 雕枯、弱旺、損益、生長八法說, 人命見驗說, 蓋取諸尊崇正理, 關諸謬說之意, 因名之曰『命理正宗』, 付諸剞劂.”

17) 위의 책, 81쪽, 〈傷官食神格〉, “甲戌 庚午 乙亥 丁丑, 逸叟自命, 眞傷官格, 庚金官星爲病. 所以靑雲志弗克就, 只爲此一點庚金羈絆. 再行壬癸, 傷損所透丁火, 愈不能制去官星. 故多蹇滯.”

18) 郭子章: 1542~1618, 명나라 江西 泰和 사람. 자는 相奎이고, 호는 靑螺 또는 蟬衣生이다. 隆慶 5년(1571) 進士가 되고 貴州巡撫까지 올랐다.

19) 張楠, 『標點命理正宗』,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11쪽, “臨川西溪逸叟神峰張楠著集, 友人索古子元臺杜春芳校正, 欽差福建布政司左布政靑螺郭子章發行, 不肖男希禹 希魯 希伋 希文 希舉 希尹彙編, 孫男世臣 世相 世仁 世科 世卿 世義謄寫.”

20) 『重鐫神峰通考命理正宗』(1830, 楊氏四知館書坊刊本, 6권), 『神峰關謬命理正宗』(上海: 千頃堂書局, 1924, 4권), 『神峰通考命理正宗』(香港: 上海印書館, 1981, 2권), 『標點命理正宗』(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1권), 『神峰通考命理正宗』(北京: 華齡出版社, 2010, 1권) 등이 있다.

하고 누락되거나 오탈자가 생기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 1589년 이후 『명리정종』이 발간되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장남 原著의 본래 면목이 아닌 것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 장남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서 물리치고자 했던 神煞과 雜格편에 오히려 그릇된 학설이 더욱 첨부되어 존송되는 개탄스런 지경에까지 지금 이르렀다.²¹⁾

본고에서는 여러 판본 중에서도 상하 2권으로 구성된 1965년 韋千里(1911~1988)²²⁾ 교정본을 위주로 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위천리는 일반 命理家들과는 달리 명리학에 대한 탁월한 식견으로 많은 저술을 하여 명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천리는 1965년 新春 자신의 韋序에서 “본서를 重刊하려는 上海印書館 주인의 부탁을 固辭하다가 校訂을 맡았는데 장차 털끝만큼도 의심되거나 잘못된 문자가 없도록 나는 바르게 교정했으며, 문구에 이르러서는 감히 멋대로 고치지 않았으며 원래의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다.”²³⁾라고 밝히고 있어서 그 저본에 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명리정종』은 크게 總論·格局論·五行干支論·歌訣篇賦 등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星正說, 五星謬說, 男女合婚說, 子平謬說, 動靜說, 蓋頭說, 六親說, 病藥說, 離枯旺弱 四病說, 損益生長 四藥說 등은 총론에 해당한다.

正官格·偏官格·時上一位貴格·傷官食神格·陽刃格 등 48개 諸格의 正說과 謬說, 神趣八法の 類象·屬象·從象·化象·照象·返象·鬼象·伏象 등은 격국론에 해당한다. 장남이 〈원서〉에서 이미 밝혔던 『명리정종』의 주요 내용은 총론과 격국론 두 편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大運과 小運, 太歲, 五星과 五行, 合沖刑害·生剋制化 등 天干과 地支의 상호작용, 天乙貴人·天德·月德 등 11가지 吉神, 六甲空亡·喪門·弔客 등 29가지 凶煞 등은 오행간지론에 해당한다.

陰陽通變妙訣·定格局訣·子平泛論·看命捷歌·四言獨步·喜忌篇·繼善篇·五行元理消息賦·一行禪師 天元賦, 맨 마지막에 수록된 病源賦 등 각종 歌訣과 篇賦들은 가결편부에 해당한다.

『명리정종』은 다른 명리서들과는 달리 맨 첫장의 〈五星正說類〉에서 사람의 命宮²⁴⁾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처음 탄생 시점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 맞추어 목차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명리정종』의 구성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장에 〈病源賦〉로 끝을 맺는 것은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 노쇠해져 결국 병들어 죽거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명리정종』은 우주에서 한 생명체가 탄생되어 성장하고 결국에는 우주의 한 품속으로 회귀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판단된다.

그러므로 『명리정종』은 〈오성정설류〉부터 〈손익생장 사약설류〉까지는 초년기로서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

21) 張新智, 앞의 논문, 51쪽.

22) 韋千里: 1911~1988, 중국 浙江省 사람. 1933년 清代 陳素庵의 『命理約言』을 선집·교정하고, 1934년 이후 『命學講義』·『八字提要』·『呱呱集』 등을 저술하여 명리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23) 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앞의 책, 3쪽, 〈韋序〉, “香港上海印書館主人重刊本書, 囑余校對, 並索序文, 余既固辭而不獲, 乃將毫無疑問之錯字, 予以改正, 至於文句, 不敢擅改, 保存原璧.”

24) 사람이 태어난 월과 시를 기준으로 황도상의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命宮을 결정한다. 위의 책, 1쪽, 〈五星正說類〉, “명궁은 受胎의 초기가 되므로 仁木이 그것을 주관하며 仁은 生生之道가 있다(然命宮爲受胎之初, 故以仁木主之, 仁有生生之道也).”

요한 뿌리에 비유할 수 있고, 〈정관격〉에서부터 〈음양통변묘결〉까지는 중년기로서 인간이 왕성하게 활발히 성장·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과정을 의미하며, 〈정격국결〉부터 〈병원부〉까지는 그동안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말년기로 구분해볼 수도 있다.

2. 『명리정중』의 주요 내용

장남은 기존의 자평명리 이론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기존 이론의 오류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하며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동정설·개두설·병약설·사병사약설 등 독창적인 이론도 제시하였다.

동정설은 陽은 하늘을 닮아 끝임 없이 움직이는 動의 성분이고, 陰은 땅을 닮아 늘 일정하고 고요한 靜의 성분이라는 기존의 動靜 관념을 명리학의 天干과 地支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천간은 동에 해당하고 지지는 정에 해당하며, 四柱 原局과 行運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원국의 천간은 행운의 천간은 극할 수 있으나 행운의 地支(支藏干)²⁵⁾는 극하지 못하고, 원국의 지지(지장간)는 행운의 지지(지장간)는 극할 수 있으나 행운의 천간은 극하지 못하며, 행운의 천간은 원국의 지지(지장간)를 극하지 못하고, 행운의 지지(지장간)는 원국의 천간을 극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즉 사람의 사주팔자에서 천간이 위[上]에 透露한 것은 動이 되고, 지지가 아래[下]에 隱藏된 것은 靜이 된다.²⁶⁾ 그리고 천간의 동한 것은 단지 천간의 동한 것만 공격할 수 있고 지지의 정한 것은 공격하지 못하며, 지지의 정한 것은 단지 지지의 정한 것만 공격할 수 있고 천간의 동한 것은 공격하지 못한다.²⁷⁾ 천간이 지지를 공격하거나 지지가 천간을 공격하는 것은 단지 약간의 요동·놀람만 줄 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았다.²⁸⁾

예컨대 八字의 천간 甲木은 단지 運路의 천간 戊土는 극할 수는 있으나 지지 巳중에 소장된 (지장간) 戊土는 극하지 못한다. 대개 동한 것이 동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긴밀하다. 가령 남자는 남자만을 공격할 수 있으며 안방에 모셔져 있는 여인은 공격할 수 없는 것이다.²⁹⁾ 예컨대 팔자의 지지(지장간) 庚金은 단지 운로의 지지(지장간) 甲木은 극할 수는 있으나 운로의 천간 甲木은 극하지 못한다. 대개 정한 것이 정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긴밀하다. 가령 여자는 여자만을 공격할 수 있으며

25) 支藏干은 地支 안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天干을 말한다. 지장간이 월지에 있는 경우를 月支藏干 또는 月律分野라 하고, 그 외의 지지에서는 人元用事라 한다. 학설에 따라 지장간의 월물분야와 인원용사의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 김만태, 「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衝·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1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40쪽.

26) 張楠(원지), 韋千里·尤達人(교정), 앞의 책, 10~11쪽, 〈動靜說〉, “故以人之八字, 天干透露於上者, 爲之動也. ……故以人之八字, 地支隱藏於下者, 爲之靜也.”

27) 위의 책, 11쪽, 〈動靜說〉, “是以天干之動, 只能攻得天干之動, 不能攻地支之靜也. ……是以地支之靜, 只能攻得地支之靜, 不能攻天干之動也.”

28) 위의 책, 11쪽, 〈動靜說〉, “但雖不能攻人, 而亦有搖動震驚之意, 但不能作實禍也.”

29) 위의 책, 10~11쪽, 〈動靜說〉, “如八字天干之甲木, 但能剋運中天干之戊土也, 不能克巳中所藏之戊土也. 蓋以動攻動爲親切, 如男人之攻得男人也, 不攻閨閣中所藏之女人也.”

밖에 있는 남자는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다.³⁰⁾ 예컨대 운로의 지지 申중의 (지장간) 庚金도 역시 팔자의 천간에 투출한 甲木은 공격하지 못한다.³¹⁾

천간에 투출한 것은 움직이고[動], 지지에 감춰진 것은 고요하므로[靜] 천간이 지지(지장간)를 극할 수 없고, 지지(지장간)가 천간을 극할 수 없다는 동정론은 결국 천간은 천간끼리만 生剋할 수 있고, 지지는 지지끼리만 생극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命과 運을 함께 볼 때 천간은 천간끼리만 보고, 지지(지장간)는 지지(지장간)끼리만 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장남은 동정론의 후반부에서 四庫地의 雜氣墓庫 沖開 작용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하였다.

가령 辰戌丑未의 4지지는 天地四方의 기운을 거두어서 간직하고[收藏] 있는 창고로서 매우 견고하다. 예컨대 팔자의 지지 辰중에는 戊土와 乙木·癸水가 있는데, 혹시 운로가 寅으로 가면 寅중에 비록 甲木이 있으나 역시 (辰중의) 戊土를 깨뜨리지 못한다. 또 운로가 酉로 가면 酉중에 비록 辛金이 있으나 역시 (辰중의) 乙木을 깨뜨리지 못한다. 또 혹시 운로가 상생하는 午로 가면 午중에 비록 己土가 있으나 역시 (辰중의) 癸水를 깨뜨리지 못하는데,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 (지지 辰이라는) 그 창고 안은 자물쇠로 굳게 보관되고 있는데, 戌자가 운에서 와서 그것[辰]을 沖해서 열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열쇠가 있어서 자물쇠를 열어 戊土·乙木·癸水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컨대 丑자는 未자로써 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것으로는 그것[丑중의 지장간 癸水·辛金·己土]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雜氣財官은 충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뜻이다.³²⁾

즉 辰戌丑未 사고지 창고 안의 지장간이 비로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이라는 열쇠가 행운에서 필요하다 고 보았다. 이는 『명리정종』 이전에 존재하던 “잡기재관은 충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견해를³³⁾ 재확인한 것이며, 비록 사고지는 고요하고 일정한 지지이지만 행운에서 충을 하면 움직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개두설은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천간은 머리고, 지지는 복부·사지이고, 지장간은 오장육부인데, 개두는 ‘머리[頭] 즉 천간을 덮는데[蓋]’는 의미로 명리학에서 적용되고 있다. 원귀[命]과 행운[運] 간에서 천간과 지지

30) 위의 책, 11쪽, 〈動靜說〉, “如八字地支之庚金, 但能剋運上地支之甲木, 不能克運上天干之甲木也。蓋以靜攻靜爲親切, 如女只攻得女人也, 不能攻在外之男人也。”

31) 위의 책, 11쪽, 〈動靜說〉, “如運上申中地支之庚金, 亦不能攻我八字中天干所透之甲木也。”

32) 위의 책, 11쪽, 〈動靜說〉, “又如辰戌丑未四地支之物, 乃天地四方收藏之庫, 極牢固。假如八字地支, 辰中有戊土, 乙木癸水, 運或行寅, 寅中雖有甲木, 亦不能破其戊。又運行酉, 酉中雖有辛金, 亦不能破其乙。又或生行午, 午中雖有己土, 亦不能破其癸, 非不能破也。蓋其庫中, 鎖鑰甚牢, 真要戌字運來沖開之, 就如有了鎖匙, 開了其鎖, 而放出戊土乙木癸水出來。如丑字就要未字沖, 別物不能攻之, 故曰: 雜氣財官喜見沖, 正此意也。”

33) 『명리정종』보다 330여 년 앞서 1253년에 최초 간행된 남송 말 徐大升의 『子平三命通變淵源』(雜氣)에서 “창고 안의 물건은 모두 닫히고 저장되어 있으므로 그 빗장과 자물쇠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발복한다. 빗장과 자물쇠를 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형충과해일 따름이다(但庫中物皆閉藏, 須待有以開其局鑰, 方言發福。所謂開局鑰者, 何物也, 乃刑衝破害耳).”라고 하였다. 김만태,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76·289쪽.

의 상호작용 관계를 파악하는 동정설과 달리 개두설은 원국과 행운 간뿐 아니라 원국 자체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개두설은 동정설과 달리 지지보다 천간의 동태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팔자 중 위의 4글자는 머리이고, 아래 지지의 4글자는 복부와 사지이고, 지지 안에 감춰진 것은 오장 육부이다. 만일 복부의 빼어난 기운이 생겨나 머리와 얼굴로 올라오면 곧 英華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일생의 부귀빈천은 단지 머리와 얼굴 위에 드러난 것으로써 알 수가 있다. 가령 팔자에서 傷官을 두려워하지만 그 상관이 속에 감춰져 있으면 아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천간에 이 상관이 투출하면 곧 머리와 얼굴 위에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어찌 가리어서 감출 수 있겠는가? 해를 입히는 것이 머리와 얼굴에 노출되면 곧 움직이는 것이 되어서 능히 해를 일으킬 수 있다.³⁴⁾

밖으로 드러나 천간을 덮고 있는 글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지에 있는 글자는 직접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꺼리는 글자라도 지지에 있으면 아직 해가 되지 않으나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비로소 실질적인 작용을 한다. 따라서 기뻐하는 글자는 천간에 드러나고, 꺼리는 글자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행운과 팔자에서 乙木 일간이면 丙丁火를 傷官으로 쓰는데, 乙일간에 상관이 거듭되면 곧 庚金 官星이 病이 된다. 만일 젊은 시절에 壬申·癸酉운으로 가면 좋지 않은 운이 되는데 壬癸水가 申酉 머리 위를 덮었기(蓋頭) 때문이다. 壬癸水가 머리를 덮으면 (丙丁火를 상하게 하므로) 좋지 않은 것이다. 뒤에 甲戌·乙亥운으로 가면 좋다. (丙丁火를 생해주는) 甲乙木이 머리를 덮었기 때문이다. 丙子·丁丑운으로 가도 또 좋은데 丙丁火가 머리를 덮어서 (원국의 病人) 庚金을 극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지지에 亥子丑水가 있더라도 그 물은 丙丁에게 개두를 당한 까닭에 역시 험가 되지는 못한다.³⁵⁾

만일 庚辛 일간이라면 甲乙丙丁 4글자가 福神으로 기쁘고, 庚辛壬癸 4글자는 病神이 된다. 행운에서 甲乙丙丁의 여러 글자들을 멀리 바라보고서 머리를 덮는 것은 좋으나 庚辛壬癸의 여러 글자들을 멀리 바라보면 명이 무너진다. 비록 행운에서 지지에 甲乙丙丁이 있더라도 역시 庚辛壬癸에게 머리가 덮여 무너지면 지지에 비록 甲乙丙丁이 있어도 역시 복을 만들지 못한다. 庚辛壬癸가 얼굴 위에서 (甲乙丙丁 복신이) 머리 위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팔자를 볼 때 이 개두하는 글자로서 멀리 바라보면 사람 일생의 좋고 나쁨을 능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전해오는 秘訣이라고³⁶⁾ 하였다.

34) 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앞의 책, 12쪽, 〈蓋頭說〉, “八字中上四個字是頭也, 下地支四字是肚腹四肢也, 支中所藏之物, 是五藏六腑也. 如肚腹秀氣, 發出在頭面上來, 便是英華發出外來, 一生富貴貧賤, 只從頭面上見得. 如八字畏傷官, 這傷官藏在內, 尚不足畏. 如天干透出此傷官, 便是頭面上已見了, 怎能掩飾. 凡有所害之物, 露出頭面, 便是動物, 就能作害.”

35) 위의 책, 12쪽, 〈蓋頭說〉, “凡行運如原八字是乙日干, 用丙丁火爲傷官, 乙日干傷重者, 便以庚金官星爲病. 如早年行壬申癸酉運, 便不是好運, 蓋因壬癸水蓋在申酉頭上, 是壬癸水蓋了頭, 便不好也. 後行甲戌乙亥運, 便好了, 是甲乙木蓋了頭也. 又行丙子丁丑運又好, 蓋得丙丁火蓋了頭, 來克庚也. 雖下面地支有亥子丑水, 其水被丙丁蓋了頭, 亦不能爲害.”

36) 위의 책, 12~13쪽, 〈蓋頭說〉, “又如庚辛日干, 喜甲乙丙丁四字爲福神, 庚辛壬癸四字爲病神. 行運望見甲乙丙丁數字, 蓋了頭便

천간은 動하는 자이고 지지는 靜하는 자이므로 천간은 지지, 지지는 천간을 극하지 못한다. 나아가 천간은 드러난 것이고 지지는 감춰진 것이므로 모든 길흉은 천간의 동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간이 지지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천간에 노출된 傷官은 움직여서 동한 것이라 그 작용이 흉하지만, 지지에 감춰진 상관은 고요하며 정한 것이라 그 작용이 그다지 흉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看命하는 초점은 천간에 있는 글자가 된다.

이처럼 장남은 『명리정중』에서 동정설과 개두설을 제안하면서 지지보다 천간에 간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후 자평명리에서 천간에 투출한 月地藏干을 관찰해서 格局을 정하는 방법의 토대가 되었다. 일간의 대외적 사회활동 무대·영역을 의미하는 격국은 정적·음적·내적인 지지보다 동적·양적·외적인 천간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³⁷⁾

『명리정중』의 명리이론은 병약설로 모두 귀결된다. 八字 原局 중에 원래 있는 害가 되는 神을 病이라 하고, 팔자에 원래 害가 되는 神이 있다면 한 글자를 얻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藥이라 한다.³⁸⁾ 또한 팔자 원국이 병들고 상하여야 귀하고 기이하다고 보았다. 본고의 주제인 병약설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IV. 『명리정중』의 병약설에 함축된 인식

병약설은 “病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고, 傷함이 없으면 뛰어나지 않은 것이다. 格 중에서 병을 제거하면 財祿이 기쁘게 서로 따른다(有病方爲貴, 無傷不爲奇, 格中如去病, 財祿喜相隨).”라는 「五言獨步」³⁹⁾의 구절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장남은 “命理書가 만권이 있어도 이 네 구절로 요약된다.”⁴⁰⁾라고 하면서 병약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장남은 “대개 사람의 조화는 비록 中和가 귀하지만, 일일이 모든 게 중화에만 매여 있다면 어찌 (음양오행) 消息의 깊은 이치를 얻어서 그 休咎(길흉)를 논할 수 있겠는가?”⁴¹⁾라고 하면서 기존의 中和論에

好, 如望見庚辛壬癸數字, 便是壞命. 雖運上地支有甲乙丙丁, 亦被庚辛壬癸蓋壞了頭, 此地支雖有甲乙丙丁, 亦不能作福. 蓋爲庚辛壬癸, 蓋在上面, 出頭不得. 看八字以此蓋頭字望見了, 就識得人生好夕, 此是真傳祕訣也.”

37) 오대 말~북송 초(10C 중반) 자평명리의 기원을 열었던 徐子平은 「明通賦」 첫머리에서 “月支를 기준으로 삼아 四時를 나누고 五行消息을 일으켜서 運을 논한다(論運者, 以月支爲首. 分四時而提起五行消息).”(萬民英, 『三命通會』,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899쪽, 「明通賦」)라고 하였다. 이는 月수를 중심으로 大運이 나아가고 격국을 정하는 현대 자평명리학과 일치한다. 이후 『명리정중』의 격국론도 다음 인용문에서 보는 바처럼 「명통부」의 기본 정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재, 관, 인수, 살, 식신, 상관 이 여섯 격은 일간과 월령에 의해 드러난다. 정격 외에 양인격이 있는데 이것도 일과 월이 서로 통하며(財官印殺食神傷官, 此六格乃日干月令所出. 正格外有陽刃格, 此係日月相通).”(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앞의 책, 98쪽, 〈印殺格〉)

38) 위의 책, 14~15쪽, 〈病弱說類〉, “何以爲之病, 原八字中原有所害之神也. 何以爲之藥, 如八字原有所害之字, 而得一字以去之之謂也.”

39) 위의 책, 264쪽, 〈五言獨步〉. 『명리정중』뿐만 아니라 이전 명리서인 『淵海子平』과 『三命通會』에도 수록되어 있다.

40) 위의 책, 15쪽, 〈病藥說類〉, “命書萬卷, 此四句爲之括要.”

41) 위의 책, 15쪽, 〈病藥說類〉, “蓋人之造化, 雖貴中和, 若一一於中和, 則安得探其消息, 而論其休咎也.”

대해 반박하면서 병이 있고 약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생의 성공을 上平下 3단계로 나눈다면, 장남의 병약설은 ‘사주에 병과 약이 모두 있으면 上, 병도 없고 약도 없이 중화를 이루고 있으면 平, 병은 있으나 약이 없으면 下’라는 논리이다.

그래서 “本身의 병이 중한데 약이 적거나, 본신의 병이 가벼운데 약이 중한 경우에는 行運에서 그 중화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병이 중한데 약을 얻으면 大富大貴한 사람이고, 병이 가벼운데 약을 얻으면 약간 부하고 약간 귀한 사람이다.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면 부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사람이다.”⁴²⁾고 하였다.

또한 “身主에 병이 있으면 그 신주는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팔자가 純然하여 旺하지도 弱하지도 않고, 원국에서 財官印이 모두 손상이 없고, 日干의 氣 또한 중화를 얻고, 아울러 起發하게 보이는 것도 없으면 평상인이다.”⁴³⁾라는 주장도 새로운 병약의 논리로 기존의 중화론을 보완하고자 시도한 장남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전문적인 술사로서 많은 상담을 했던 장남은 실제 사주간명에 있어서 병약설을 위주로 하고 기존 자평명리의 중화론이나 財官 위주의 간명방식은 참고로 하였더니 비로소 證驗함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병약설을 깨닫기 전에는 언제나 중화로써 사람의 조화를 궁구했으나 열에 한둘의 중험도 없었다. 또 재관으로써 논하였으나 역시 모두 귀착되는 취지가 없었다. 훗날에 비로소 나는 병약의 취지를 깨달게 되어, 재차 재관과 중화를 참고하여 간명하니 예전에 (중험이 되지 않던) 여덟 아홉 가지도 그 조화가 그렇게 된 까닭의 오묘함을 얻을 수 있었다.⁴⁴⁾

가령 사람의 사주팔자가 전부 토로 되어 있다면 水일간은 殺이 중하여 身輕하게 되고, 金일간은 土가 두터워져 埋金하게 되고, 火일간은 火가 어두워져 無光하게 되고, 木일간은 財가 많아서 身弱하게 되고, 土일간은 比肩⁴⁵⁾이 太重하게 되니, 이 모든 격에서 土가 병이 되므로 전부 木이 醫藥이 되어 그 병을 제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다.⁴⁶⁾ 그리고 만일 財星을 쓰는데 比肩을 보면 병이 되니 官殺이 약으로서 기쁘다. 만일 食神·傷官을 쓴다면 印星이 병이 되니 財星이 약으로서 기쁘다고⁴⁷⁾ 하였다.

그러나 병약설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발견된다. 장남의 설명대로 만일 사주팔자에 土가 매우 많다면 土가

42) 위의 책, 15쪽, 〈病藥說類〉, “或本身病重而藥少, 或本身病輕而藥重, 又宜行運, 以取其中和. 若病重而得藥, 大富大貴之人也, 病輕而得藥, 略富略貴之人也, 無病而無藥, 不富不貴之人也.”

43) 위의 책, 16쪽, 〈病藥說類〉, “如身主有病, 就要醫身主也, 如八字純然不旺不弱, 原財官印俱無損傷, 日干之氣, 又得中和, 並無起發可觀, 此是平常人也.”

44) 위의 책, 15쪽, 〈病藥說類〉, “愚嘗先前未諳病藥之說, 屢以中和而究人之造化, 十無一二有驗, 又以財官爲論, 亦俱無歸趣, 後始得悟病藥之旨, 再以財官中和參看, 則嘗八九而得其造化所以然之妙矣.”

45) 사주팔자 주인공인 日干과 나머지 글자와의 오행의 생극 관계를 가려서 十星을 구분하는데, 我(일간) - 비겁(比劫, 나와 오행이 같은 것) - 식상(食傷, 내가 생해주는 오행) - 재성(財星, 내가 극하는 오행) - 관성(官星, 나를 극하는 오행) - 인성(印星,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있다. 나(일간)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생해주는 관계이며 하나를 건너뛰면 극하는 관계이다. 이를 음양의 차이로 다시 구분하면 比肩·劫財·食神·傷官·偏財·正財·偏官·正官·偏印·正印 등이 있다.

46) 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앞의 책, 15쪽, 〈病藥說類〉, “假如人八字中, 四柱純土, 水日干則爲殺重身輕, 如金日干, 則爲土厚埋金, 火日干則晦火無光, 木日干則爲財多身弱, 土日干則爲比肩太重, 是則土爲諸格之病, 俱喜木爲醫藥, 以去其病也.”

47) 위의 책, 15쪽, 〈病藥說類〉, “如用財見比肩爲病, 喜官殺爲藥也, 如用食神傷官, 以印爲病, 喜財爲藥也.”

그 사주에서 해가 되는 병이며, 木이 그 병을 제거하는 약이 된다는 게 병약설의 요지이다. 그런데 이는 食傷이 用神이면 印星이 병이 되니 財星이 약으로서 기쁘다는 연이은 설명과 모순된다.

예를 들어 장남의 병약설의 논리대로라면 水일간이 土가 매우 많으면 官殺이 중하므로 木식상이 病弱用神이다. 이 경우 木식상이 용신이므로 이를 극하는 金인성은 병이 되고 金인성을 극하는 火재성은 약이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火재성은 병인 土관살을 도우므로 오히려 병을 중하게 하는 또 다른 병이며 일간 입장에 서는 도저히 약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火재성은 약으로 간주된다. 반면 金인성은 쇠약한 水일간을 도우므로 일간에게는 긴요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으로 간주되는 모순이 생긴다. 그 원인은 장남의 병약설도 중화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중화의 초점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인 日干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의 신하인 用神에 맞춰져 있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었다는 데 있다.

장남은 여자의 命을 보는데 있어서도 財官과 함께 병약설을 활용하였다. 즉 “여자의 명이 身弱한데 재관이 왕하면, 남편의 가정은 흥성하고 모친의 가정은 망한다.”⁴⁸⁾ “남편星과 자식星이 入墓하면 역시 남편과 자식은 생존키 어렵다.”⁴⁹⁾라고 말하고, 장남은 이러한 곳에 “단지 팔자를 보아 병이 있는 곳에 병을 제거하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다.”⁵⁰⁾고 하였다. 여기에서 병이란 四柱의 신약이나 입묘를 말하며, 제거함이란 약의 작용으로 身旺運을 만나거나 입묘의 경우 沖하는 운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남의 병과 약의 개념을 정리하면, 병은 사주팔자에 害가 되면서 원국에 있는 것이고, 약은 병을 제거하는 것인데 原局에 있든 行運에 있든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원국은 인생 전반의 모습이고, 행운은 그 기간 동안만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약은 행운에서 오는 것보다 원국에 있는 것이 보다 순탄한 운명이 될 수 있다.⁵¹⁾ 약이 있을 경우에는 원국의 병은 중할수록 대부대귀하다고 보았다. 팔자 원국에서 출현할 수 있는 병에는 4가지가 있고 이를 치료하는 약에도 4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1. 彫·枯·旺·弱의 4가지 病

彫枯旺弱의 4가지 병에서 첫 번째는 ‘다듬다’는 의미의 ‘彫’이다. ‘조’란 다듬어 연마하고 불로 정련하는데 공이 있는 것이다. 비록 玉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쪼아내고 다듬지 않는다면 쓸모없으며, 아무리 좋은 金도 정련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로 설명하였다.

무엇을 彫(彫)라 하는가? 예컨대 玉이 비록 지극한 보배이나 귀함은 다듬어 연마하는 공에 있고, 金이 비록 완전한 보배이나 귀함은 불로 정련하는 공에 있다. 진실로 옥을 다듬지 않는다면 비록 荆山の 아름다운 것도 쓸모없는 옥이 된다. 金을 정련하지 않으면 비록 麗水의 좋은 것도 쓸모없는 金이 된다.⁵²⁾

48) 위의 책, 14쪽, 〈六親說〉, “女命亦然, 若財官旺而日主弱, 夫家興而母家滅.”

49) 위의 책, 14쪽, 〈六親說〉, “若夫子星入墓, 亦難爲夫子也.”

50) 위의 책, 14쪽, 〈六親說〉, “但只看八字有病能去其病, 則有妻有夫有子也.”

51) 송지성, 앞의 글, 137쪽.

‘조’는 사주 원국에서 꺼리고害가 되는 글자, 즉 忌神이 있어야 비로소 귀해지고 쓸모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正官이 있으면 이를 해치는 傷官도 있어야 하고, 財星이 있으면 이를 겁탈하려는 比劫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자평명리 관점과는 매우 상반된 것이다. 장남은 해가 되는 기신이 없는 사주는 순수하고 잡된 것이 없는 것과 같아서 아직 다듬지 않은 옥이나 아직 정련하지 않은 금과 같다고 보았다.

사람의 팔자도 대개 이와 같아서 만일 官星을 보았는데 傷官이 전혀 없거나, 財星을 보았는데 比劫이 전혀 없거나, 印綬를 보았는데 財星이 전혀 없거나, 食神·傷官을 보았는데 印綬가 전혀 없으면 이는 매우 순수하고 잡된 것이 없는 것과 같은데 아직 다듬지 않은 옥이나 정련하지 않은 금과 같지 않겠는가?⁵³⁾

두 번째 병은 ‘메마르다’는 의미의 ‘枯’이다. ‘고’는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忍苦를 의미한다. 風霜을 맞은 나무는 봄이 오면 화려하게 되고, 가뭄 속의 穡苗은 비가 오면 무서운 기세로 자란다는 자연의 일반적인 이치로 설명하였다.

무엇을 枯라 하는가? 풍상을 맞은 나무는 봄의 화려함에 이르면 볼 만하게 되고, 가뭄 속의 穡은 비가 오는 때를 얻으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청량한 기후는 항상 더위의 맹렬함이 남아 있는 곳에서 펼쳐지고, 화창하고 따뜻한 계절은 매번 혹독한 추위 뒤에 거두어진다.⁵⁴⁾

그래서 “사람의 조화에서 官의 귀함은 메마른 것에 있으니 관이 왕성해지는 운으로 가면 귀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財의 귀함은 메마른 것에 있으니 재가 왕성해지는 운으로 가면 재물을 헤아리기 어렵다.”⁵⁵⁾고 하였다. 다만 뿌리가 있고 메마른 것은 귀하지만 穡만 있고 메마른 것은 귀하지 않다고 하였다.⁵⁶⁾ 즉 비록 財官이 지금은 메마르더라도 장차 왕성해지는 운을 만나면 부귀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메마른 오행의 뿌리(根)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장남은 강조하였다.

만일 관성이 뿌리가 없으면 벼슬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재성이 뿌리가 없으며 재물이 어디에서 생겨나겠는가? 그러므로 財官印綬는 뿌리가 있고 메마른 병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혹 만약 뿌리가 없는데 스스로 메마르게 되면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팔자는 뿌리는 있으나 메마른

52) 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앞의 책, 16쪽, 《雕枯旺弱四病說類》, “何以爲之雕也? 如玉雖至寶也, 而貴有雕琢之功, 金雖全寶也, 而貴有煅煉之力. 苟玉之不琢, 雖曰荆山之美, 則爲無用之玉也. 金之不煉, 雖曰麗水之良, 則爲無用之金也.”

53) 위의 책, 16쪽, 《雕枯旺弱四病說類》, “人之八字, 大概類此, 如見官星未曾有傷官, 見財星未曾有比劫, 見印綬未曾有財星, 見食神傷官未曾見印綬, 若此純然無雜, 不猶未琢之玉, 未煉之金乎.”

54) 위의 책, 16~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何以爲之枯也? 風霜木之, 春華之至可觀焉, 旱魃之苗, 得雨之機難過焉. ……是以清涼之候, 恒伸於炎烈之餘, 和煦之時, 每收於苦寒之後.”

55) 위의 책, 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故人之造化, 官貴有枯也, 行官旺地, 貴不可言. 財貴有枯, 行財旺鄉, 財難計數.”

56) 위의 책, 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但貴其有根而枯也, 不貴其有苗而枯也.”

병에 걸린 것을 귀하게 여긴다.⁵⁷⁾

세 번째 병은 ‘왕성하다’는 의미의 ‘旺’이다. ‘왕’은 만물이 그 氣勢가 가장 왕성한 때를 만나는 것이다. 生長하는 春木과 肅殺하는 秋金을 비유로 설명하였다.

무엇을 旺이라 하는가? 많은 꽃들이 싹터서 자라면 참된 木의 광채를 볼 수 있고, 만물이 시들어 떨어지면 참된 金의 속살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기 그 질을 온전히 하고 그 형태를 갖추게 된다.⁵⁸⁾

“봄철 숲속에 木이 왕성하면 水가 많은 것을 보아 그 神木을 더욱 굳세게 하고, 여름에 火가 뜨거우면 木이 많은 것을 보아 그 木령함을 더욱 도와준다.”면서 만물의 氣와 勢가 가장 왕성한 경우도 설명하였다.

팔자 원국에 왕성한 병이 있으면 이를 剋해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남의 이 논리는 “사주가 한 가지 오행으로 집중되었을 경우 그 오행의 기세를 좇아 從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존의 자평명리 관점과 매우 상반된다. 가령 財星이 매우 왕성하면 기존 자평명리에서는 日干이 태왕한 재성의 기세를 좇아가는 從財格으로 보고, 이와 상치되는 比劫運을 매우 꺼린다. 그런데 장남은 오히려 비겁운으로 가서 태왕한 재성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관성이 매우 왕성하면 상관운으로 가서 관성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고, 재성이 매우 왕성하면 비겁운으로 가서 재성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고, 인성이 매우 왕성하면 재성운으로 가서 그 인성을 깨뜨리는 것이 마땅하며 일간이 매우 왕성하면 관살운으로 가서 그 일주를 극제하는 것이 마땅하다.⁵⁹⁾

마지막 병은 ‘약하다’는 의미의 ‘弱’이다. “비와 이슬이 부족하면 만물의 품성이 소진되고, 혈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의 몸이 여윈다.”⁶⁰⁾면서 ‘약’을 비유하였다. 그리고 卦氣易學에서 음양의 소식 변화에 따른 12消息卦로써 ‘약’을 부연 설명하였다.

무엇을 弱이라 하는가?……天根地雷復을 밟을 수 있으면 六陽의 약함을 들을 수 있고, 月窟(天風姤)을 찾을 수 있으면 六陰의 약함을 궁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양의 약함은 끝내 약한 곳에는

57) 위의 책, 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苟若官星無根, 則官從何出, 財星無根, 財從何生? 是以財官印綬, 貴有根而枯之病也, 或若無根, 而自爲之枯焉, 則亦非矣, 是以八字貴有根枯之病也.”

58) 위의 책, 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何以爲之旺也? 群芳茁長, 可觀眞木之光輝, 萬物凋零, 可識眞金之肅殺. 是以各全其質, 各具其形.”

59) 위의 책, 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然或官星太旺者, 宜行傷官運以去其官星, 財星太旺者, 宜行比劫運, 以去財星, 印星太旺者, 宜行財星運, 以破其印星, 日干太旺者, 宜行官殺運, 以制其日主.”

60) 위의 책, 17쪽, 〈雕枯旺弱四病說類〉, “雨露不足, 則物性爲之消磨, 血氣不充, 人身爲之羸瘦.”

이르지 않아 臨·泰에 오를 수 있고, 육음의 약함도 끝내 약한 곳에는 이르지 않아 遁·姤에 의지할 수 있다.⁶¹⁾

“사람의 조화는 財官印綬가 약한 것을 귀하게 여기니 약한즉 왕성함의 기초를 가진다. 만일 官星이 매우 약하면 官이 왕성해지는 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라면서 약한 병이 있는 경우에는 왕성한 운을 만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枯’와 마찬가지로 그 약한 오행의 뿌리(根)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장남은 강조하였다.

비록 약함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도 지극히 약한 것이 뿌리가 없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水는 비록 巳에 이르러 지극히 약해지지만 巳에는 庚金이 있어 水의 뿌리가 된다. 火는 亥에 이르러 지극히 약해지지만 亥에는 甲木이 있어 火의 뿌리가 된다.……약하면서 뿌리가 없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소위 ‘싹이 나기 전에 뿌리가 먼저 있는 것이다(根在苗先).’라고 한다.⁶²⁾

水火를 예를 들어 각 오행의 絕支와 生支로도 ‘弱’을 설명하였다. 소위 絕處逢生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자평명리에서는 지극히 약한 경우 그 약한 오행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것과는 상반된 논리이다.

2. 損·益·生·長의 4가지 藥

損益生長의 4가지 약에서 ‘損’이란 남는 것을 덜어내는 것으로서⁶³⁾ 만일 木이 남는 병이 있으면 金을 써서 그것(木)을 剋制해야 하고, 金氣가 남는 병이 있으면 火를 써서 그것(金)을 극제해야 한다. 관성의 기가 남으면 그 관성을 덜어내고, 재성의 기가 남으면 그 재성을 덜어내야 하는데 그러므로 팔자는 남는 것을 덜어내는 약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다.⁶⁴⁾

‘益’이란 미치지 못한 것을 더해주는 것으로서⁶⁵⁾ 만일 木이 미치지 못하면 혹 水운으로 가서 그 근본을 분게 하거나 혹 木운으로 가서 그 지업을 무성하게 한다. 만일 水가 미치지 못하면 혹 金운으로 가서 그 원류(源流)를 깊게 하거나 혹 水운으로 가서 그 팽배를 넓게 한다. 만일 관성의 기가 부족하면 관이 왕성해지는 鄉을 기뻐하고, 재성의 기가 부족하면 재가 왕성해지는 地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팔자는 (미치지 못한 것을)

61) 위의 책, 17~18쪽, 〈雕枯旺弱四病說類〉, “何以爲之弱也?……天根可躡, 六陽之弱可關乎, 月窟可探, 六陰之弱者究也, 是以六陽之弱, 不至於終弱, 而有臨泰之可乘, 六陰之弱, 不至於終弱, 而有遯否之可托.”

62) 위의 책, 18쪽, 〈雕枯旺弱四病說類〉, “然雖貴有弱也, 則猶恐極弱之無根, 故水雖至巳爲極弱, 然已有庚金爲水根也, 火雖至亥爲極弱也, 然亥有甲木, 爲火之根也.……然猶畏弱之無根, 所謂根在苗先也.”

63) 위의 책, 18쪽, 〈損益生長四藥說類〉, “損者, 損其有餘也.”

64) 위의 책, 18쪽, 〈損益生長四藥說類〉, “若木有餘之病, 用金以制之, 金氣有餘之病, 用火以克之. 官星之氣有餘, 則損其官星, 財星之氣有餘, 則損其財星.……是以八字貴有損之之藥也.”

65) 위의 책, 18쪽, 〈損益生長四藥說類〉, “益者, 益其不及也.”

더해주는 약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였다.⁶⁶⁾

‘생해준다’는 의미의 ‘生’은 “음기가 생하면 양기가 죽고(陰生陽死), 양기가 생하면 음기가 죽는다(陽生陰死).”는 陰陽順逆의 12運星 관점과 오행의 相生을 함께 고려하여 六陽의 참된 생과 六陰의 그렇지 않은 생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생’은 갓난아이가 아직 포대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아서 비록 ‘생’을 만나더라도 아직 그 기운이 왕성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생의 이치는 形과 氣가 비로소 나뉘어서 갓난아이가 아직 포대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精과 華가 처음으로 구별되어서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胞胎를 벗어난 것이다. 가령 木은 亥에서 생하지만 根氣는 오히려 말라서 아직 木이 왕성할 수 없다. 가령 火는 寅에서 생하지만 불꽃의 기는 오히려 차가워서 아직 火가 왕성할 수 없다. 또한 혹 財官印이 生地에 임하면 아직 재관인이 왕성할 수 없다. 무릇 그 기가 부족하므로 (팔자는) 그것을 생해주는 약이 있어서 구제해주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⁶⁷⁾

‘자라게 한다’는 의미의 ‘長’은 12운성에서 자신의 기세가 최고조에 이르는 帝旺에 해당되는데, 각 오행이 月令을 담당하는 계절과 방위를 비유로 설명하였다. 가령 財官이 木에 속한다면 이를 자라게 하는 것은 寅卯辰의 春方に 있으니 이때 이르러 바야흐로 木氣가 펼쳐진다고 하였다.⁶⁸⁾

무엇을 長이라 하는가? 봄누에가 고치를 지으면 木氣는 바야흐로 퍼지고, 여름 더위가 火爐를 이루면 炎光이 비로소 드러난다. 가령 木이 震의 자리에 임하고, 火가 離의 궁에 이르면 이는 제왕의 鄉과 같으니 실로 生과 長의 자리가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생은 장의 처음이고 장은 생의 계속이다.⁶⁹⁾

지금까지 『명리정종』에 나타난 장남의 병약사상을 조고왕약의 4가지 병과 손익생장의 4가지 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장남은 4가지 병과 4가지 약을 열거하며 병약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나 그의 분석은 비교적 막연하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기존 자평명리학의 중화론과 그 논리가 매우 상반된다.

清代의 명리학자 陳素庵(1605~666)은 그의 저서 『命理約言』에서 장남의 병약설을 긍정하면서도 순수하고 중화되어 있는 人命을 부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편벽되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장신봉의 병약설은 그 법이 매우 훌륭하지만 病傷을 취하는 것은 醫藥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66) 위의 책, 18쪽, 〈損益生長四藥說類〉, “若木之不及, 或行水運以滋其根本, 或行木運以茂其枝葉. 若水之不及, 或行金運以浚其源流, 或行水運以廣其澎湃. 若宮星之氣不足, 則喜官旺之鄉, 財星之氣不足, 則喜行財旺之地. ……是以八字貴有益之藥也.”

67) 위의 책, 19쪽, 〈損益生長四藥說類〉, “且如生之理, 形氣始分, 赤子未離於襁褓, 精華初判, 嬰兒初脫於胞胎. 如木之生於亥, 根氣猶枯也, 未可以木爲旺也. 如火之生於寅, 氣焰猶寒也, 未可以火爲旺也. 又或財官印臨於生地, 未可以財官印爲旺也. 凡氣之不足, 故貴濟之有生之藥也.”

68) 위의 책, 20쪽, 〈損益生長四藥說類〉, “如財官屬木, 則長養在寅卯辰之方, 此木氣方數也.”

69) 위의 책, 20~21쪽, 〈損益生長四藥說類〉, “何以謂之長也? 春蠶作繭, 木氣方數, 夏熟成爐, 炎光始著, 如木臨震位, 火到離宮, 若此帝旺之鄉, 實不同於生長之位. 是以生者長之初, 長者生之繼也.”

이미 의약을 썼으면 中和로 돌아가게 되니 바른 이치를 버리고 편벽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팔자가 순연하여 왕하지도 약하지도 않으며 재관이 손상을 입지 않고 日主가 중화되어 있는 명을 (병이 없는 사주라고 하여) 평범한 사람의 명으로 판단하니 그 설이 더욱 편벽되다. 인명이 순수하고 중화되어 있으면 어찌 부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⁷⁰⁾

중화민국의 명리학자 徐樂吾도 그의 저서 『子平粹言』(1938)에서 팔자는 모름지기 중화를 이루어야 하며 귀천은 병약에 있지 않다면서 장남의 병약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오언독보」에서 이르기를, “병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고, 상함이 없으면 뛰어나지 않은 것이다. 격 중에서 만약 병을 제거하면 재물과 복록이 저절로 서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봉은 병약설을 펼쳤으나, 요점은 팔자는 모름지기 중화를 이루어야 한다. 귀천이 어찌 병약에 있겠는가? 「독보」의 의미는 병이 있는데 아직 쉼가 되기에 부족할 때, 약을 얻어 구제하면 그 귀함이 의심이 없을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어찌 진실로 병이 귀하게 되겠는가? 크게 강하고 크게 약하면 병이다. 그것을 돕고 그것을 억누르면 약이다.⁷¹⁾

중국의 명리학자 陸致極은 “장남의 병약설은 팔자구조 내부의 不平衡性を 매우 강조한 것이며 이런 선천적 불평형성이 있을 때, 즉 병이 있을 때 약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평형을 얻고 새로운 중화에 도달하는 것이다.”⁷²⁾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병약설이 사주명리를 분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도구이며 전통 명리학에 풍부한 寶庫가 되긴 하지만 일종의 편파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⁷³⁾

한국의 명리학자 李錫暎은 장남의 병약설을 부귀한 사람들의 시련 극복과정에 비유하였다. 즉 “柱中에 병이 없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오히려 병이 있음으로써 부귀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주에 병이 있어 제거해야 귀히 되는 것이며, 또 이 병은 輕한 것보다 오히려 重한 병을 제거함이 있음을 더욱 귀히 여기는데, 이것을 인간생활에 비유하여 본다면 크게 부자 되고 크게 귀히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노력과 고생이 있고 또 시련과 위기에도 처해보고 悲憤에서도 인내하며 심신의 단련을 쌓고 쌓아서 비로소 그 功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이 곧 사주에 得病하였다가 그 병이 제거되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⁷⁴⁾라고 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장남의 병약사상은 사주팔자 구성요소의 強弱을 근거로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것은 보조하는 抑扶의 방법을 통해 平衡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약의 상태가 병이 되는 외에도 ‘彫’의 병에서 “관성을 보았는데 상관이 전혀 없거나, 재성을 보았는데 비겁이 전혀 없거나, 인수를 보았는데 재성이

70) 陳素庵(지음), 韋千里(선집), 『命理約言』, 香港: 上海印書館, 1987, 105쪽.

71) 徐樂吾, 『子平粹言』,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8, 396쪽, “五言獨步云, 有病方爲貴, 無傷不是奇. 格中如去病, 財祿自相隨. 神峰演之爲病藥說, 要之八字須要中和, 貴賤豈在病藥. 獨步之意, 謂有病未足爲害, 得藥爲救, 無礙其貴. 豈眞以病爲貴哉. 太強太弱病也, 扶之抑之即藥也.”

72) 陸致極, 『中國命理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251쪽 참조.

73) 위의 책, 251쪽 참조.

74) 이석영, 『四柱捷徑』 권6, 한국역학교육학원, 1994, 45쪽.

전혀 없거나, 식신·상관을 보았는데 인수가 전혀 없는” 경우도 병으로 취급하였다.⁷⁵⁾ 하지만 실제상 이 경우에는 ‘상관, 비겁, 재성, 인수’가 있는 자체가 바로 病根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비유하자면 아직 다듬지 않은 옥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그 하자를 제거하지 않아야 오히려 아름다운 옥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V. 맺음말

명대 말, 장남은 기존 자평명리 이론의 오류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자 하였고, 나아가 동정설·개두설·병약설 등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여 자평명리 이론을 풍부하게 하였다. 장남은 자신의 저술 『명리정종』에서 사주팔자의 중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병약법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淵海子平』⁷⁶⁾과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미 병약법을 취하고 있었지만 이를 ‘병약설’이라고 이름붙이고 그 개념을 체계화한 것은 『명리정종』이 처음이다.

병약설은 “병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고, 상함이 없으면 뛰어나지 않은 것이다. 格 중에서 병을 제거하면 재물과 복록이 기쁘게 서로 따른다.”라는 「오언독보」의 구절에 그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기존의 중화론에 대해 반론하면서 오히려 병이 있고 약이 있어야 비로소 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팔자 원국에서든 운에서든 약이 있을 경우에는 팔자 원국의 병은 중화수록 대부대귀하다고 보았다. 팔자 원국에서 출현할 수 있는 4가지 병(彫枯旺弱)과 이를 치료하는 4가지 약(損益生長)도 열거하며 설명하였다.

비록 장남은 4가지 병과 4가지 약을 열거하며 병약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나 그의 분석은 비교적 막연하고, 기존 자평명리학의 중화론과 그 논리가 매우 상반된다. 이에 대해 이후 많은 자평명리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비판의 요점은 순수하고 중화되어 있는 인명을 부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편벽되며, 사람의 팔자는 모름지기 중화를 이루어야 하며 병에서 그 귀함을 찾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장남의 병약설은 사주팔자 자체의 선천적인 불평형성을 강조하여 이런 불평형성이 있어서, 즉 병이 먼저 있어서 약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평형을 얻고 새로운 중화에 도달하여 부귀하게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사주팔자 구성요소의 강약 상태 자체가 병이 되는 외에도 관성을 보았는데 상관이 전혀 없거나, 재성을 보았는데 비겁이 전혀 없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기존 자평명리에서와 달리 병으로 취급하였다.

장남의 병약설이 기존 자평명리학의 중화론과 상반되는 원인은 사주명리의 중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장남의 병약설도 중화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중화의 초점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인 日干, 혹은 體를 중심으로 한 사주 전체의 중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이 사용하는 用神에 맞춰져 있어 용신이

75) 陸致極, 앞의 책, 252쪽 참조.

76) 『淵海子平』은 明代 1634년 唐錦池가 南宋代 1253년 徐大升의 『子平三命通變淵源』을 비롯하여 후대 여러 학자들의 文集과 口訣 등을 모아서 발간한 명리서이다. 김만태, 앞의 책, 2012, 276·290쪽.

병들면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고전 자평명리학과 현대 자평명리학의 이론적 틀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三命通會』 『明通賦』, 『玉照神應真經』.

김만태, 「조선 전기 이전 四柱命理의 유입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_____, 「조선조 命課學 試取書 『徐子平』에 관한 연구」, 『藏書閣』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_____, 「十二支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衝·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1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_____,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사주명리의 반체제적 성향」,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송지성, 「『명리정중』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석영, 『四柱捷徑』 권6, 한국역학교육학원, 1994.

최진묵, 「漢代 數術學 研究－漢代人의 天·地·人 理解와 그 活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萬民英, 『三命通會』,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徐樂吾, 『子平粹言』,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8.

袁樹珊(편저), 『中國歷代卜人傳』,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98.

陸致極, 『中國命理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張楠(원저), 韋千里·尤達人(교정), 『神峰通考命理正宗』, 香港: 上海印書館, 1981.

張楠, 『標點命理正宗』,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臺北: 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論文, 2002.

陳素庵(지음), 韋千里(선집), 『命理約言』, 香港: 上海印書館, 1987.

鄒文耀, 『命學尋眞』, 臺北: 集文書局, 1982.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일에 투고되어,
2017년 3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7년 3월 2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4월 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Study on the Byeongyak(病藥) Principle(Illness and Medication Thought) Implied in 『*Myeongrijeongjong*(命理正宗)』 as the Original Text of Chinese Myeongli

Kim, Mantae*

In the late Ming Dynasty of China, Jangnam(張楠) pointed out the errors of the theory, japyeongmyeongli, from an analyt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and tried to correct and improve the theory. As part of his efforts, Jangnam, in his book, 『*Myeongrijeongjong*(命理正宗)』, presented byeongyak(病藥) principle (method of illness and medication) in full extent. Although the byeongyak principle has been already employed in many other literature including 『*Yeonhaejapyeong*(淵海子平)』, 『*Myeongrijeongjong*』 was the first literature to name it as byeongyak principle and organize its ideas.

The byeongyak principle (method of illness and medication) bases on the phrases of 『*Oeondokbo*(五言獨步)』 that “It is nothing special that one never gets sick and becomes valuable only in the face of an illness. If an illness is removed in the constitution of Sajupalja, wealth and happiness are accompanied together(有病方爲貴, 無傷不是奇, 格中如去病, 財祿喜相隨)”. In addition, four illnesses(彫枯旺弱) potentially occurring in the original constitution of palja were listed and explained along with four medications(損益生長) of them.

Jangnam's byeongyak principle contradicts to the existing balancing theory of japyeongmyeongli because sajumyeongli had a different perspective on what the balancing was. Jangnam's byeongyak principle, too, seeks balancing but the focus is not on balancing the entire saju based on the thing or ten celestial stems of birthday, the main part of sajupalja; but its focus was on the utilized gods by the ten celestial stems. For this reason, if the utilized gods got si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focus and secondary focus were reversed in trying to treat the illness. It is deemed that this is because of the gap in the theoretic frame and viewpoints between the classical japyeongmyeongli and contemporary japyeongmyeongli.

[Key Words] *Myeongrijeongjong*(命理正宗), Jangnam(張楠), byeongyak(病藥) principle(illness and medication thought), sajumyeongli, sabyeongsayak(four illnesses and four medications)

* Professor, Dongh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